



제목	Radical Love: Teachings from the Islamic Mystical Tradition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Yale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8. 5. 22.
저자	Omid Safi(편집자)
출판도시	New Haven
페이지수	336
ISBN 또는 ISSN	978-0300225815

내용 요약

이 책의 제목인 ‘급진적 사랑’이 암시하는 바는 양가적이다. ‘급진적’이라는 형용사는 20세기 후반부터 ‘폭력적인’ 것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었고, 21세기 벽두부터 ‘파괴적인’ 이슬람 테러와 연계되었으며, 지금은 테러에 의한 ‘공포적인’ 분위기 확산과 상관이다. 반면 사랑은 기독교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이슬람 방식으로 표현되든, 불교의 가르침으로 가시화되든, 본질적으로 볼 때 자기희생을 전제로 하고 자기 소멸을 지향한다. 이렇게 볼 때 ‘급진적’이라는 형용사와 ‘사랑’이라는 명사의 결합은 어울배반적이다. 이 책의 제목과 달린 책표지는 너무나 아름답다. 이런 맥락에서 이 책의 편집자 오미드 사피는 독자들이 철저하게 다른 두 얼굴을 가진 이슬람 전통과 친숙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이슬람의 신비주의적인 전통을 빌려온다.

이 책에서 사피는 처음으로 무슬림 현자들이 추구하는 코란의 구절, 예언자들이 역설하는 신비로운 말, 그리고 ‘신성한 사랑’이 가리키는 것을 하나의 길에 비유하는데, 이 길은 말하자면 산의 정상에 이르는 여러 갈래의 길이고 결국에는 산 정상에 이르는 길이다. 각각의 종교를 믿는 사람은 각각 다른 길을 선택해서 산을 오르는 사람과 같다. 등산객들이 결국 정상에 오르는 것처럼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도 결국에는 산의 정상이라는 신에게로 이른다.

사피는 산의 정상에 이르는 길 중간 중간에 몇 개의 이정표를 세우고 그 위에 각각 ‘사랑의 신(God of Love)’, ‘사랑의 길(Path of Love)’, ‘연인들(Lover and Beloved)’, ‘연인들의 공동체(Beloved Community)’라는 글자를 새긴다. 그리고 그 이정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루미를 비롯한 수많은 수피 시인들이 쓴 시들을 포석으로 깔아 놓는다.